

# 계룡산 수행환경 멎는다

감사, 동학사 등 불교성지가 가득한 국립공원 계룡산이 멎어가고 있다.

충남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조성된 동학사 인근 온천지구가 15년간 홀몰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자연사박물관과 국도개설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계룡산이 심각한 환경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감사 경내지를 강제수용, 제2야영장 설치를 강행하고 있어 사찰수행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

공주 감사(주지 장곡)는 경내지 강제 수용과 관련 지난 7월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토지수용 이익결재(97년 12월 3일) 처분취소 청구사건'에 패소,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감사는 항소 이유에서 "비록 토지수용의 과정이 전통사찰보존

## 정부 감사 경내지 야영장 설치 강행 동학사 인근에 자연사박물관 추진

법 시행일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조계종총무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다하더라도, 제2야영장은 감사로부터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찰의 환경과 풍치를 크게 해칠 우려가 크고, 제1야영장의 예상 이용객 수 등을 감안하면 또다른 야영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없어 전사법의 목적을 집탈하는 것으로서 토지수용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감사는 11일 공원관리공단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온천 개발, 자연사박물관 설립, 국도 1호선 건설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계룡산에 다시 대규모 야영장을 건설하는 것은 포괄적 합작으로 철달간을 보수하고, 영구대사와 800여 스님들의 혼을 기리는 당간재와 영구재

를 추진중인 민족문화의 보고 감사의 주변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만일 야영장을 강행할 경우 공원입장료 납부 거부운동 등 강력한 반대지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족 종교·사상의 성지이기도 한 계룡산은 전국 5대 명산중 하나로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전된 수려한 경관으로 연간 100만명이 찾는 국립공원.

그러나 15년전 계룡산 장군봉 아래 온천공이 발견되자 충남도는 동학사 온천지구개발 기반공사를 진행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8만여평의 산중턱만 홀몰스럽게 파헤쳐 채 방치해 수려했던 자연경관을 망가뜨렸다.

여기서 고치지 않고 충남도는 지난 2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승인을



거쳐 동학사 온천지구 바로 인근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경관과 생태계 파괴, 식수 고갈로 인한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도 1호선인 두마-반포노선 개

10년간 홀몰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감사 일주문 300m 근처의 지대만 호텔 건축물, 일주문 50m 거리에는 야영장 건설이 예정되고 있다. 계룡산 곳곳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

설문제도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미 90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나, 계룡산을 허물거나 경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기존 도로의 활용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종단소식

#### 조계종

##### 직지사 구미시 향의방문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는 구미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철폐를 위해 14일 구미시의회를 향의 방문했다. 향의 방문단(대표 법초스님·직지사 총무)은 이날 천년 불교문화유산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조례 제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시의회는 재의 요청 시 부결함으로써 조례를 철폐할 것 △구미시 진동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것 △목표관철을 위해 구미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 금정불교대 학생 모집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금정불교대학(학장 성오)은 20일~12월17일까지 계속되는 교리반과 경전반 학생을 모집한다. 교리반은 매주 월·화요일, 경전반은 매주 수·목요일 주간과 야간반으로 진행된다. 입학식 20일 오후2시 범어사 보제루 설법전. (051)866-7277.

#### 태고종

##### 백련사 일주문등 단청불사

서울 백련사(주지 월해)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일주문과 해탈루(법고각)의 단청불사를 마무리했다. 주지 월해스님은 "이번 단청불사를 통해 종단의 중심사찰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게 됐으니 이를 계기로 종단의 수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천태종

##### 복지회보 '자비손' 창간

복지재단 (대표이사 윤덕스님)은 회보 <자비손>의 창간호(사진)를 발간했다. 창간호에

는 대표이사 윤덕스님의 발간사를 비롯, 종량구 새끼어린이집 소개, 인터뷰, 건강길라잡이 등 복지관련 다양한 소식이 들어있다. <자비손>은 4X6판 개간으로 발행된다.

#### 진각종

##### 비로자나 청소년협 출범

7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가 24일 오후 3시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법인설립 발단(출범)발사를 봉행했다. 법인설립 발단발사는 1부 법요식과 2부 자성동이 풍물공연, 청소년관련 강연회 등으로 개최된다. (02)913-0753

##### 혜인정사 감사 선출

종의회(의장 휴명)는 17일 총인원 회의실에서 제322회 임시종의회와 유

지재단 이사회 합동회의를 갖고 8월6일자로 임기만료된 의현정사 후임 감사로 혜인정사 <부산 법석심인당주교·사진>를 선출했다.

또 회현정사의 진각대학 교무처장 승진발령을 인준하고 경기도 안산, 서울 상계동 등 3곳의 종교부지와 건물을 매입심인당을 신축하도록 승인의 승인을 마쳤다. 주지 월해스님은 "이번 단청불사를 통해 종단의 중심사찰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게 됐으니 이를 계기로 종단의 수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승종

##### 종단스님 하계수련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수련교육이 19~21일 과산군 다보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종정 도암스님 총무원장 일오스님 교육원장 진판스님 등 60여 스님들이 동참한 이번 수련교육에는 '반야심경' '팔정도' '12인연법' 등의 강의와 율력 등으로 진행됐다.

## 부산 2명중 1명꼴 화장

### 전국 최고...작년 9천명 동참

타종교에 비해 불교 신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지역의 사망자 가운데 2명중 1명꼴로 화장(火葬)을 하는 등 부산의 화장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1만8,835명 가운데 9,433명이 화장을 해 화장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평균 31%보다 20%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부산시의 경우 화장비율이 95년 38.5%, 96년 41.6%, 97년 43.1%, 98년 49%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부산 다음으로 화장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43%), 울산(39.8%),

인천(38.8%), 경기(36.2%) 등의 순이었다. 전남(10.1%), 충북(10.2%), 제주(11.1%), 전북(12%)은 아직 화장률이 낮다.

이처럼 부산의 화장 비율이 높은 것은 95년 장례식장과 화장장·납골당 등을 갖춘 최첨단 시설의 영락공원이 건립된데다 상대적으로 땅이 좁고 화장을 선호하는 불교신도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산시는 17일부터 20일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부산무역전시관에서 '부산 장묘문화 및 납골묘 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장묘문화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

## 사형폐지 불교본부 잇달아 창립

### 내달 부산·대구·광주·대전

'사형제 폐지 부산불교본부 창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지원)는 15일 준비모임을 갖고 9월초 창립하기로 했다.

이는 '사형제 폐지 불교운동본부'(공동위원장 진관·지원)가 서울 본부를 비롯 사형수 수감 교도소가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9월중 지부 창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형제 폐지 부산불교본부'는

창립과 동시에 서울 본부와 연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타 종교와 연대한 세미나 개최, 지부 협력 사업 모색 등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준비위원장 지원스님은 "사형제 폐지는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불자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인 사형제 폐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군법당 호국관음사 낙성 개신교 부대장도 후원

육군 제31보병사단 군법당인 호국관음사(주지법사 한영규)가 착공 2년여만인 30일 오후1시 불상 점안식과 낙성식을 거행한다.

총 공사비 2억5천여만원이 소요된 호국관음사는 80평의 법당과 40평의 요사채를 갖추고 있다. 광골당 등을 갖춘 최첨단 시설의 영락공원이 건립된데다 상대적으로 땅이 좁고 화장을 선호하는 불교신도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산시는 17일부터 20일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부산무역전시관에서 '부산 장묘문화 및 납골묘 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장묘문화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

## 1~4일 무안 연꽃축제

### 홍윤사 이차돈 추모제

경주 홍윤사(주지 해해)와 이차돈·원효 양성사 불친회가 주최하고 신리문화원(원장 진병길)이 주관하는 '이차돈 성사 추모제'가 9월 2일(음력 8월5일) 오전 10시 불교공원을 위해 순교로써 신라 땅에 불법의 뿌리를 내리게 한 순교성자 홍윤사에서 봉행된다.

이차돈 추모제는 이차돈의 생애를 되새기고, 그의 충절을 기리며,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054)774-1950 김재경 기자



하와이 무량사는 13일 이민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지장보살상 점안 및 명부전 화장불사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 하와이 무량사 납골당 조성 해외 첫 1천기 규모...지장상도 봉안

해외사찰에 첫 납골당이 조성된다. 미국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는 13일 한국이민 1백주년을 맞이하여 이민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한국독립운동의 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한 지장보살상 점안 및 명부전 화장불사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무량사는 금년 명부전에 1천기 규모의 납골시설을 안치키로 하고, 본격적인 불사 착공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무량사는 6일 명부전 주변 야외마당에 단을 마련하고 1차로 지장보살상 500좌를 조성하여 봉안했다. 앞으로 1500불을 더 조성하여 모실 예정이다.

주지 도현스님은 "하와이는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사람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독립자금을 모았던 이주민 1세대와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힘쓰다 순국한 선열들의 영혼이 잠든 곳이다"며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 한인들의 사후 안식처가 되도록 납골당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량사는 '태평양 전쟁 참전전우회'와 함께 7월 30일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에서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봉행했다. 하와이=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지리산 청학동 대나무 숲으로 만든 차량용 공기정화 탈취제 대숲 쿠션

■ 대숲 대나무숲의 효과  
지리산 대숲 대나무숲의 우수한 공기정화 작용과 음이온 및 원격외선 효과가 온전수의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대나무숲이 내뿜는 알파(a)파와 음전자의 각종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 합니다.

지리산 대숲 대나무숲의 탁월한 흡착작용이 차(茶)안의 각종 냄새를 말끔히 제거하며 살균력을 지닌 속초액을 첨가하므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항균력이 매우 우수하고 습도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나습니다. 또한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유해 전자파의 공해로부터 온전자를 보호합니다.

구분	사양	가격
차량용 (공기정화탈취제)	쿠션형태	27,000
실내용 (공기정화탈취제)	피라미트형태	35,000
신발 (냄새제거제)		2,000

■ 대숲 쿠션의 특징 및 용도  
 • 100% 국산 대나무숲 사용 탁월한 효과, 효능 체험  
 • 자연 염색천을 사용  
 •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에너지)관련 부적 및 문양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신비함  
 • 대숲 쿠션은 실내 공기정화용 및 탈취용 제품으로써 일반 쿠션용도와는 다르게 비비거나 몸을 기대지 마세요.  
 • 실내용, 차량용, 신발용, 명상용  
 • 자매품 : 대나무 숲 다수  
 자연염색 의류(100% 대나무 숲, 황토염색)

▶ 사찰 행사용 등으로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현재 불교방송에 협찬 광고 중입니다.  
 ▶ 소중함 분께 드리는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000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11월 10일)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056  
 ■ TEL : (055)883-4380 FAX : (055)883-4380 H·P : (017)242-6976  
 ■ Website : www.daesup.com, E-mail : daesup@hanmir.com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뽕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능력"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